

<파리의 비애>

락커룸에 한 마리 파리가 날아다닌다. 손톱만한 크기로 굉장히 커다란 놈이다. 시끄럽게 뱅뱅거린다. 새벽에 출근한 나는 파리의 날갯짓이 너무도 불쾌했다. 무시하고 피곤한 몸으로 어기적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해야 할 일들이 무심코 머리를 스쳐 지나갔고, 내 생각을 또 파리가 주위를 헤집으며 흔트려놓았다. 짜증이 난 나는 무심코 와이셔츠로 향의하듯 휘둘러 파리를 내쫓았다.

파리는 도망치며 여기저기 벽면에 부딪혔다. 그리고도 뱅뱅, 뱅뱅 방향을 알 수 없는 비행을 계속했다. 나는 문득 파리가 불쌍했다. 너무도 조그만 그에게는 이 널따란 락커룸이 알 수 없는 세계일 것이다. 그에게는 앉아서 쉴 조그만 쓰레기더미만 있으면 족할 것이다. 거기서 먹고, 사랑하고 죽을 것이다. 나는 파리의 시끄러운 날갯짓이 마치 당황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처럼 들렸다. 어찌다 날아와 별천지에 떨어진 파리는 그의 조그만 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와버렸다. 어딜 가도 다 같은 곳으로 보이고,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고,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온통 벽면으로 쌓인 공간. 그는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힘을 다해 비참한 죽음을 맞을까.

나의 짧은 생각은 유니폼으로 다 갈아입고 일터에 나서며 그쳤다. 그런데 점심을 먹고, 화장실에서 또 파리 한 마리가 당황하는 날개 음을 내며 날아다니고 있는 걸 보았다. 또 새벽에 했던 생각이 이어졌다.

그에겐 그저 썩어가는 찌꺼기 더미 하나면 족하다. 그는 거기서 가족을 만들 것이다. 그는 거기서 자랐을 것이다. 혐오스럽지만 오동통한 구더기에서, 탈피해 파리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날갯소리가 너무도 불쾌하고 그의 모습이 징그러웠지만 그럼에도 동정이 갔다. 그는 파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를 혐오할 수밖에 없다. 감상에 젖어있는 나조차, 그를 죽일 수 있다면 파리채로 때려죽일 것이다. 그것으로 그의 생은 찌부러져 나온 내장과 함께 마감하겠지.

본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홀로 방황하다 죽어가는 생명이며, 얼마나 끔찍한 일이란 말인가?

나는 마치 낭만 시대의 유럽 시인이라도 된 마냥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화장실을 나갔다. 그리고는 파리의 일은 흘랑 잊어버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갔다.

그날 밤에 난 아무도 없는 자취방에 불을 끄고 누웠다. 잠들기에는 조금 이르고, 그렇다고 시간이 아까워 무언가를 하기에 도 애매한 시간에 나는 무기력하게 누워있었다. 그리고 문득 아침의 그 파리가 생각났다. 그러곤 '아, 이건 파리의 비애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건 파리의 비애다, 또 나의 비애다. 수많은 사람의 비애다.....